

ORBI

제 1호

2012년 수능 쉬워졌다는데..

오르비 14 뭐가 다를까?

아랍어 정말 블루오션인가?

2012 최고의 화두어 '폭발'과 '핑크'

until과 by의 뉘앙스 차이

오르비 대학 탐방 제 1탄

연세대를 다녀왔습니다.

문과에서 이과로의 반수

고 3의 다섯가지 철칙

그냥 제수생 만화

수학공부의 조그만 진실

인화사정관계 뉘 뭐니?

6-1

2012년 수능 쉬워진다는데?

쉬워진 수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비할까?



신학기 무렵,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올해 수능을 영역별 만점자가 1%에 이르는
쉬운 수능'으로 출제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난이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상위권 학생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진영, 노이즈, 잼, 이무송 같은
요즘 대학생들은 도저히 모를 가수들이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석권하던
1993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첫 해에 한해서 두 차례 실시되었기 때문에,
올해 드디어 20번째 시험의 역사를 쓰게 된다.
증권 시장 개장 시각이 늦춰지고, 비행기도 듣기 평가 시간 눈치를 보고 떠야 할 만큼,
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험이기에,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수능 난이도다.

사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수능 난이도가 문제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간 해가 거의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것이 2000년(01 수능)과 2007년(08 수능)이다.
둘 모두 수능 시험이 쉽게 출제된 해였는데,
전자의 경우 수능 만점자가 66명에 이르렀고,
결국 그 중 한 명이 정시모집에서도 서울대에 떨어지는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 표준점수 폐지 및 등급제 전면 실시로,
수리 영역에서 한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하위권 의대에 원서를 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당혹스러운 사례가 빈출했고
결국 이듬해 표준점수제가 부활했다.

쉬운 수능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하나를 철학적인 면에서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수학적 면에서의 문제다.

철학적인 면에서의 문제는 시험을 왜 치르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상위권 학생들 간의 미묘한 실력차이를 변별할 수 있게 되고,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낱낱이 해부할 수 있는 반면,
수능 난이도의 칼끝이 무뎌지면,
학력보다는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집중력, 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수능이 쉬웠던 해에는 심중팔구 신문지상에서
'실력차가 아니라 실수차' 같은 헤드라인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한편 지나치게 높은 수능 난이도는, 실증된 적은 없지만,
공교육을 고사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며,
가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나 여당에게는 수능 난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부여되고,
결국 장관이 만점자 1% 운운하게 되는 것이다.

수학적인 면에서의 문제는 표준점수 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2004년(05학년도) 이후의 수능 시험부터 탐구 영역에서 동일 계열 내의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응시하는 시험 문항이 사라지면서, 서로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간의 실력을 비교하기 위해 원점수가 사라지고 표준점수가 전면으로 대두되면서 생긴 문제이다. 표준점수 제도는 이론적으로 학생들의 시험점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울수록 왜곡이 적어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시험 문제들의 난이도 분포가 고르게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전체 문제의 1/5는 아주 어렵게, 1/5는 다소 어렵게, 1/5는 중간 난이도로, 1/5는 다소 쉽게, 1/5는 아주 쉽게 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험 문제가 일방적으로 쉽게 출제되면 1-2등급에서, 일방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 8-9등급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8등급 학생과 9등급 학생을 변별하는 것보다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을 변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려운 수능보다는 쉬운수능이 문제가 된다.

그런 문제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2005학년도 수능 탐구 영역에서의 윤리 과목이나 2001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 영역에서의 독일어 과목이다. 전자의 경우, 만점자가 17.4%에 이르러서, 만점을 받고도 백분위가 92%가 나오고, 2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면 3등급을 받게 되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만점자가 무려 절반에 이르렀는데, 당시 등급제가 실시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요즘 같았으면 1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고 5등급 성적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은 다른 영역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쉽게 출제된 과목에서의 실수 한 문제로 목표 대학에 원서를 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현명한 독자는 쉬운 수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위와 같은 불우한 사례로부터 이미 추론했을 것이다. 즉, 쉽게 출제된 과목에서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수능 출제 위원들이 작심하고 시험 난이도를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면, 시험의 변동성이 대단히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만점자가 66명에 이르렀던 01 수능에서도 출제 위원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쉽게 출제한다'는 입장을 공연히 밝혔었고, 이렇게 쉬운 난이도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이듬해 출제 위원들은 '작년보다는 변별성을 갖출 수 있게 시험 난이도를 다소 조정하겠다' 고서는 400점 만점 시험에서 평균 67점을 떨어뜨려 수험생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이미 천명된 '쉬운 수능'에서도 화룡점정 격이 되는 정말 쉽게 출제된 과목에서는 만점자가 10%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목에서는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 점수가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과목을 선택한 것 자체가 원죄가 되어 명문대 최상위 학과 지원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수험생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목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쉬운 과목에서 2점 짜리 한 문제만 틀리더라도 명문대에서 반영하는 대학 자체의 변환표준점수가 그 과목에서 급감하게 되어 언어, 수리, 외국어 같은 주요 과목에서 3~4점 짜리 문제를 틀린 것보다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면 명문대 지원자들은 반영 과목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때문에, 명문대를 고집하는 수험생들은 그런 실수 하나 때문에 재수, 삼수로 직행하는 비극도 겪는다.

쉬운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다.

- 1** 수능 시험이 2~3주 내로 임박하면 매일 전과목 모의고사의 0.5회 분량 정도를 풀면서 자신있는 과목에 대한 감도 유지시키는 것이다.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은 1~2과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 수능 시험이 가까워져도 실점을 하는 소수의 과목에 집중하고, 특히 외국어나 수리 영역과 같이 흔히 고득점을 받는 과목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흔한데, 감을 잃은 상태에서 실제 수능 문제를 접하면 시간 관리에 실패하거나, 4/9를 2/3으로 약분하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 2** 같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시험 난이도가 쉬워지면 시험 문제를 다 풀고도 1/3 이상의 시간이 남는 경우가 흔해진다. 수리나 과학탐구 같이, 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거나 답에서부터 문제로 거꾸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나 과목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값을 산출하고, 기존의 결과와 교차 검증함으로써 우연히 발생한 실수들을 잡아낼 수 있다. 학생들은 흔히 '다 아는 문제인데 실수로 틀렸다'고 말하는데, 어떤 시험에서도 만점을 받는 일부 학생들은 그러한 실수까지 잡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들은 물론이다.
- 3** 성격이나 공부 습관 자체를 어느 정도 바꾸는 것이다. 흔히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학생들 중 일부는 덜렁대거나 서둘러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은 명상이나 요가를 하거나, 일부차분한 종교 행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 반대로 너무 소심한 학생들은 쉬운 문제들 중에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섞여 있을 때 그 난이도 차이가 크게 느껴져서 갑자기 당황하고 시간 관리에 실패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시험 때마다 기능성 설사를 앓거나, 발한증, 심계항진 등을 겪는 학생들은 미리 내과 혹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수능 시험이 약제를 투여하는 첫 번째 경험이 되지 않게 해두는 것이 좋다. 공부를 할 때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듣는 학생들도 많은데, 시험을 2~3개월 앞두고서는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습관을 중단하는 편이 득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들은 신곡의 가사가 수능 시험 내내 귓가에서 울리는 느낌을 받게 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쉬운 문제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능 역사상 가장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던 01 수능이 끝난 후, 390점대 고득점 학생들이 자구책을 찾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가 오르비스 유틸무스인 만큼, 오르비와 쉬운 수능은 악연으로 끈끈하게 뭉쳐진 멜레야 멜 수 없는 사이다.

수능 시험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부족한 전형 요소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최근 10년 동안 대학 입시가 변해온 방향이다.
그 기저에는 점수 1-2점 차이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이 있다.

1점이 아니라, 0.001점 차이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하더라도
그 점수 차이가 계산된 방법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문제가 없고,
결국 피험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점이 그렇게 보기 싫다면,
전형 총점에 10이나 100을 곱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후 특차 입학이나,
일부 수시 모집 전형과 같이,
1-2점 차이를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되고, 비리가 양산된 사례가 그간 얼마나 많았는가?

수능 시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며 학력을 경쟁하는 유일한 시험이며,
그런 점에서 가장 공정한 전형 요소이다.

학습 환경의 평등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면,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보조적인 전형 방식에 정원의 일부를 할당하여 보완하거나,
열악한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복지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학력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옳다.

2000년에는 90%의 수험생들을 수능 성적으로 뽑았다.
감산이 한 번 변하고 나니
20%의 수험생들만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입학사정관제니 쉬운 수능이니 허울 좋은 말을 하지만
그 과실을 어떤 계층이나 집단이 얻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라.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행운을 빈다거나 대박을 기원한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운이라는 건 공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쉬운 수능에서,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학력만큼만의 결과를 얻게 되는,
정말 '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2011년 5월
오르비 운영자 이광복

연세대를 다녀왔습니다.

5월 24일 유난히도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무사히 연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고1인 채현과 지연, 고2인 재하, 승복이 참여하였고,
연세대 학생인 연고대 게시판에서 유명한 Peroz Leopold님과
제가 Peroz님께 '여학생+신입생'을 주문하여 데려온 경영학과 11학번 민영님,
그리고 연대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나서 저희와 강제 합류하게된
독동의 유명한 수학의 신 '난만함'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연대 캠퍼스를 둘러봤는데, Peroz님이 미리 공부를 해오셨는지,
연세대의 역사도 가르쳐주시고 너무 안내를 잘해주셔서 정말
가이드와 관광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공대, 이과 건물을 지나, 공사중인 체육관, 신학관
그리고 너무너무 이쁜 사회복지학과 건물들과 정원을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시간을 보냈는데, 다 둘러보고 싶기도 했지만
너무 넓은 캠퍼스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도 고파, 골고다 언덕 아래에서 관광은 마치기로했어요.
골고다언덕은 연세대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언덕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오를 수 없는 언덕이라는데,
그 위에 마법의 성이라 불리는 경영대 건물이있어요.
경영대 건물은 정문에서도 보이는데,
가도 가도 닿지 않아 마법의 성이라 불린다고 해요.
유명한 가요 '마법의 성' 작사가가 바로 연세대 경영학과 선배라는
놀라운 사실! '마법의 성을 지나 높을 건너~~~~~'
웬지다 같이 흥얼 흥얼.~

연세대 관광을 끝내고, Peroz님께서
'조금만걸어가면 조용한 피자집이 있어요'
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갔는데,
가도가도 끝이없었죠.
연세대가 너무 넓다보니,
연세대학생들
은 거리개념이 좀 다른거 같네요 ^^;;



연세대 선배들과 Q&A

재하: 수리 /등급이 얼마나 중요하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및 의대를 가려면 수리영역만큼은 /등급이 아니어서는 절대 안돼!
정시에서는, 수리가 /등급이 아닐 경우
언어, 외국어, 과탐 등에서 특릴 수 있는 여유 문제가 다 합쳐서 세 개가 안 되거든.
전 과목을 전부 다 맞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 수리는 연세대는 심지어 30%라는 반영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에서 하나를 특릴 경우 다른 과목에서 세 개를 더 맞아야 보충이 되거든,
수시에서는, 수리가 /등급이 아닐 경우, 우선 선발에 해당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수리만 /등급이었어도 5대/1의 경쟁률에서 쾌적하게 논술고사를 치를 것을
40대/1이라는 무지막지한 경쟁률에서 치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수시 논술 고사는 수학, 과학의 어려운 문제를 본고사 형으로 풀어야 하는데,
수리 /등급을 맞을 지식 없이는 이 논술고사를 푸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따라서 이과생이라면 절대 수리 공부에 소홀해서는 안돼!

승복: 제가 내신성적이 약한데 내신이 큰 영향주지 않고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 궁금해요.

서연고를 기준으로 할 때에 내신 위주의 입학 사정관제 전형
- '서울대 지군, 연세대 진리자유, 고려대 추천-학교장' 은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으로 전교 1/2등 일 것을 요구하지.
이러한 내신형 전형에는 지원하면 안 될꺼야.
특기(어학, 수상 실적) 위주의 입학 사정관제 전형
- '서울대 특기자, 고려대 특별-국제/, 연세대 글로벌리더/과학인재' 같은 경우,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내신이 일반고 기준 /등급 후반 ~ 특목고 기준 5등급대[특별한 경우] 라서,
내신 위주의 전형들보다는 훨씬 그 기준이 약하지만,
아무래도 승복 학생이 원하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 보기 힘들고,
각종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 등 준비해야 할 비교과가 많기 때문에,
이 전형은 중점적으로 준비하게 될 경우 수능 공부에 쏟을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
승복 학생에게 맞는 수시 전형은 수능성적 위주의 일반 수시 전형
- 연세대 일반우수자 전형, 고려대 일반 전형으로 보여.
일반 전형에서는 내신이 실질적으로 정시 수준으로만 영되거든,
연세대는 수리영역과 과학탐구 2과목이 /등급이어야 하는데,
연세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 과학탐구 3과목 중에 물리나 화학을 반드시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해 .
그러나,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지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데면, 물 2, 지 1, 생 1을 선택한 학생은 연세대에도, 서울대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가장 못 본 과목이 물 2라면 연세대에서는 과학탐구가 2과목만 반영되므로
물 2의 성적이 수시 및 정시 성적에 반영되지 않아.
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정시 전형이 있어.
요즘은 서울대에서도 정시에서 내신의 영향력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정시는 실질적으로 내신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아도 돼!
연세대와 고려대는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대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어!

주미: 고/인대, 논술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게 맞나요?

꼭 학원을 가야하나요? 혼자서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나요?

일정 수준의 수능 성적이 나오지 못 하면 논술 준비 자체가 무의미해.
논술은 빠르면 2학년 겨울 방학에서 늦으면 3학년 6명 이후 준비해도
수능 성적이 높으면 합격은 위한 논술 실력을 갖추기 충분해.
인문계인 만큼, 반드시 언/수/외 /등급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야.
심지어, 언/수/외 /등급이면 논술에 단 한 글자만 쓰고 나라도 합격할 수 있는 학과도 연세대학교에 존재해!
논술을 혼자서 준비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딱히 효율적인 방법이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
오르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새로운 논술 서비스도 개발 중이니, 자주 들러서 확인해봐!

승복; 의대에 들어가려면 어느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 지 다시 알려주세요

정시권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수리(가) 형 기준의 자연계 전국상위 누적백분위로 Major 및 인 서울 의대 : (서/연/성/울/고/한/중) 0.1%~0.5% 전후, 지방 주요 의대 : 1% 전후, 지방 하위권 의대 : 2% 전후의 성적을 받아야해 여기서 %라는 것은, 승복 학생이 전국 모의고사를 볼 때에 우측 하단에 언+외+탐 99xx, 언+수+외+탐(3) 99xx 라 같은 식으로 표기되어 나오는 그 숫자를 100에서 뺀 숫자, 즉 자신의 위치가 전국 전체의 수험생 집단에서 종합적으로 상위 몇 %인가를 의미해. 단, 승복 학생이 수능을 본격적으로 응시할 때를 전후하여, 의전원 체제로 바뀌었던 의대들이, 대독 다시 의대 체제로 전환할꺼래. 따라서 의대에 가기 위한 전국 누적 백분위가 한결 수월해질 가능성이 존재해. 열심히 공부한다면 기회가 충분할 꺼라 생각해.

승복; 예전에 입시상담 받았을 때 수사에서 수능우선선발 전형이라는 것을 추천받았는데, 그 전형으로 의대도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물론, 의대도 갈 수 있지. 수능우선선발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 이야. "일반 전형" 을 실시하는 대학들에서는 모두 의/치 계열도 일반 전형으로 뽑아. 그런데, 의대는 다른 학과보다 그 수능 기준이 더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해. 연세대는, 다른 자연계 학과들은 모두 수리 및 과학탐구(2과목) /등급을 요구하는데 그치지만, 의과대학은 수리, 과학탐구 모두 /등급일 뿐 아니라 언어 또는 외국어도 /등급이어야 해. 치과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게다가, 다들 너무 공부를 잘하는 고급 포본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체 논술에서 세부 문제를 기준으로 3문제 이하로 틀려야만 합격선에 닿을 수 있어. 수리라 과학 실력이 아주 수준급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정시로 가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길이지만 또 다른 기회 하나의 기회길 하지.

채현; 특목고와 자문고에선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일반고산 못보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라도 봐야 하나요?

너무 자주 보면 오히려 좋지 않아. 사실 모의고사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출제원리가 전혀 다른 평가원 및 전국모의고사에 안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어. 아주 어려운 모의고사를 익숙해지기 위해 나중에 재수학원에서는 월례고사라는 것을 보지만, 현역 학생들은 매 달에 한 번 있는 [1학년은 적게 있지만 3학년에는 매 달에 한 번] 교육청 실시 모의고사만으로도 충분히 주기적인 실력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미; 연대는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무슨 과목이 들어가나요?

내신 6번이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걸려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몇번 어떻게 넣나요? 내가 고르나요?

연대는 국영수사과가 들어가고, 주요 대학의 내신 반영 방식은 내신 6번 중에 잘 본 학기 3학기가 자동적으로 골라져서 들어가는 방식이야. 즉,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잘 본 것들만 골라서 들어간다는 거지 ^^

재하; 주요 대학 커트라인 백분위를 알고싶어요

정시권 기준으로 문과에서, 그 학교의 가장 낮은 과를 기준으로
서울대 = 전국 0.4% 이내 [언/수/외 백분위 평균 최소 99 이상]
연세대, 고려대 = 전국 1.5% 이내 [언/수/외 백분위 평균 97.3 전후]
성균관대, 한양대 = 전국 3% 이내 [언/수/외 백분위 평균 95 전후]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 전국 5% 이내 [언/수/외 백분위 평균 93 이상]

승복; 연대 생명공학과는 어느 정도 점수 되어야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리(가) 형 기준으로 3% 전후, 과학탐구 기준으로 15% 전후의 성적이 필요해.

채현; 중위권 성적은 사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중위권 (전국 모의고사 기준 5% 전후) 성적은 사교육을 올바르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기 벅찬 과목라 오히려 혼자서 공부할 때 능력이 잘 온랐던 과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목인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타악이 중요한 시점이야. 학원 선생님이나 인강 강사를 남들이 들어서 듣는 식으로 부하되듯 해서는 안 돼! 개인적으로는 과외를 추천하는 편이야 ㅎㅎ. 1:1 수업 방식이니 만큼 학생 개개인에 맞추기가 수월하니깐



오르비 14 달라졌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왜? 달라졌을까??

저와 함께
하근하근 배워봐요



1. 기존의 '게시판' 개념이 태그(#)로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게시판으로 이동할 때에는 게시판 (태그) 이름을 누르면 돼요.

#자유게시판	1007079 #서울대 서울대 내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대	1007072 #서울대 서울대 이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대	1006942 #서울대 서울대 탐구
#특기자	1006896 #서울대 남동 수시여
#지역균형	1006342 #서울대 서울대 내선
#기회균형	1006295 #서울대 서울대 디L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고대	1006048 #서울대 서울대 내선
#연고대	
#연대문과	
#연대이과	

게시판 이름 부분을 누르면
그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해요.

#서울대, #특기자, #연고대
이런식으로 보고 편 게시판을 동시에
체크해 내가 골라볼 수 있어요.

서울대 게시판 한곳만 보고
싶으면
#서울대만 체크하면 되고!!

#자유게시판	1007153 #서울대 전집 특기자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대	1007121 #서울대 내선이요.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기자	1007079 #서울대 서울대 내선선
#지역균형	1007072 #서울대 서울대 이반여
#기회균형	1007048 #연고대 #고대문과 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고대	1007020 #연고대 #연대문과 연
#연대문과	
#연대이과	

체크된 박스를 한번 더 누르면
체크가 지워지고, 그 게시판의
글들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아요.

꼭 가느라 씨 앞의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입시'의
모든 게시판의 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

전체 선택 해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배치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시뉴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시분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유게시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회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고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고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대문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대이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대문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대이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성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성한공	

[공지]	#공지 오르비 14 업그레이드는 진행 중 4
[공지]	#안부모상임 #태호사공지 #올 대산초담의 5. 6차 학부모 입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선착 - 2
[공지]	#태호사공지 #육군사관학교 지역부대 입시설명회
1210021	#서성한공 2012학년도 연세대, 고려대, 상관대, 서강대, 4개 주요대학 합 - 1
1210018	#서성한공 2012학년도 상관대학교 대입 합격전략
1210017	#상관대 2012학년도 상관대학교 대입 합격전략
1210004	#서울대 언어 문법책을 배우려면..? 1
1210791	#고대 부록한 2%가 무얼까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2
1210770	#서울대 재수 하러합니다 2
1210604	#연대이과 #합정공 수능공수 질문 1
1210603	#자유게시판 5분짜님이 직업을알고싶은 의미고사요... 3
1210641	#고대문과 제가 고려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1210639	#서울대 서울대 공대 일간데요 !! 4
1210632	#수시예 첫글 1

3. orbikr/ 뒤에 게시판 이름을 적으면, 주소창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우와 환~선
편해졌네요!!

기존의 게시판은 물론이고,
내가 만든 게시판도 주소창에
바로 입력 가능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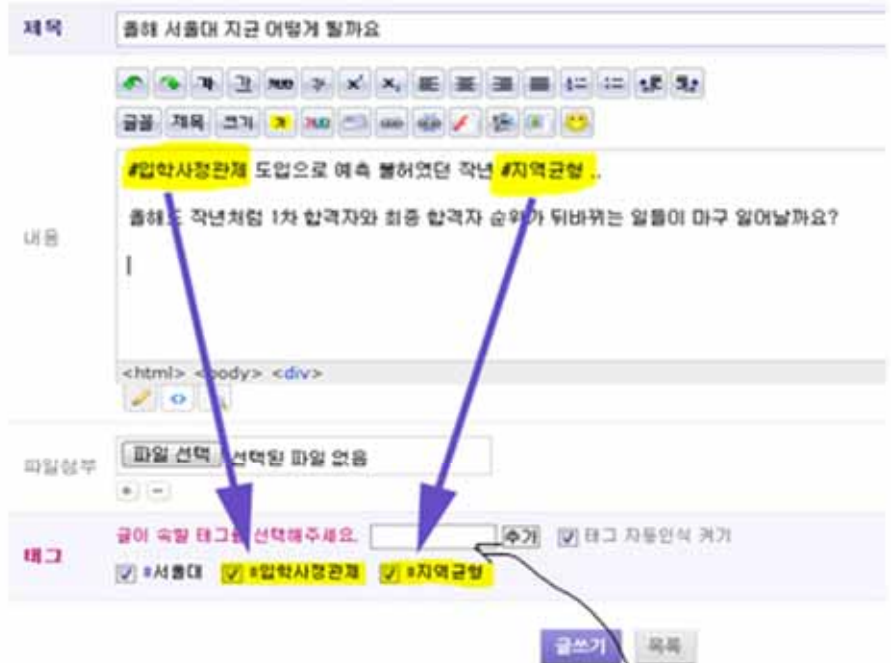
4. '전체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게시판의 글을 시간 순으로 볼 수 있어요.



- [공지] #공지 5월 23일(화요일)에 오르
- [공지] #공지 웹 사이트 및 커뮤 IPI ?
- [공지] 5. 글을 쓸 때 태그가 자동 감지되고, 여러 게시판에 동시에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참 쉽죠~~잉~~!!



글을 쓰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던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지만,
글을 쓰는 도중에 #이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면,
아래 '태그' 항목에 자동으로 해당 태그가 인식되어서, 해당 게시판으로도 글이 올라가요.
즉, '#지역균형'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포함되면 그 글은 자동으로 지역균형 게시판에서도 표시돼요.
본문에 입력하지 않고, '글이 속할 태그를 선택해주세요.' 옆의 하얀 박스에
게시판 이름을 입력해도 그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어요.

6. 회원들이 원하는 게시판 (#태그)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위 예제에서 '가입학사장관계' 라는 태그는 현재 게시판 리스트에 없지만, 새로운 글에 임의로 태그를 주어서, 게시판을 만든 것과 같은 효과를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학사장관계 라는 태그로 글을 쓰면, '최근 추가된 태그' 나 '인기태그' 에 해당 태그가 나타나게 돼요.
 태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쓰이게 되면, 그 태그는 기존의 게시판 목록 사이에 편입되어 공식 게시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와 알고 보니
 완전 편리해졌네요!

- #1학년생
- #2학년생
- #3학년생
- #7차신목동

인기태그

오르비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WAZET Corporation | 서울특별시

최근 추가된 태그

오르비 추천 교재

2012 연간 업데이트 입시자료집
 *2탄 * 2012 주요 대학별 입시전략서

최근 추가된 태그나 인기태그 목록에 없는 태그는 검색창에 태그를 입력해서, 그 태그로 올라온 글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물론 주소창에 orbi.kr/#입학사장관계 와 같이 입력해서 볼 수도 있지요.

#입학사장관계 검색

2012 수능 **D-172**

f(x)가 x=0에서 연속일 때, f(x)는 x=0에서 연속이다

글에 속한 태그 : #독학생 #수리

작성지 카사별당가 작성일 11-06-01 12:01 IMIN 290648 IP 116.38.210.171 조회수 176

예전에만 동학생들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글들,
 관련태그인 '#수리' 태그가 붙어, 수리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수리 관련글들 '수리' 게시판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완전 편하죠!!!

이거 반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12 자기소개서 특강] 「서울대 자기소개서 열전, 자기소개서 살전」 저자가 직강
 [중앙대학교] 2012학년도 전국 입학설명회
 [티치미] 김찬휘 신규강좌 무료! 6월모형 대비 EBS 변형특매 선착순 무료수강생 모집

목록 | 스크랩 | 신고

Clairaudie 06/01 12:02 IMIN : 331715 IP : 211.246.68.113
 네

Clairaudie 06/01 12:03 IMIN : 331715 IP : 211.246.68.113
 f(x) = 3(when x >= 0)정했습니다 - 동호추가)0, 2(when x < 0)

카사별당가 06/01 12:11 IMIN : 290648 IP : 116.38.210.171
 x>0일 때는요?

앞서가던 오르비!!
 오르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오르비의 글들을 아주 볼 수 있어요!

7. SNS로 오르비 게시물을 쉽게 피나를 수 있어요.



게시물 제목 밑에 있는 아이콘들을 누르면, 한 번의 클릭만으로 오르비 게시물을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으로 피나를 수 있어요.



2012입시, 꼭 알아두어야 되는 용어 “폭발” 과 “핑크”

연세대학교 점수공유 카페 운영자
연세대학교 07학번 김지웅

1. '폭발' 과 '핑크' 의 정의와 예측의 중요성

2011입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연·경)에 지망한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였다. 연세대식 변환점수로 350점이 넘는 학생들이 대기번호를 받았고, 실제로 커트라인도 약 349.5점 정도였다. 연세대식 점수로 349.5점이면, 수능시험 전국 상위 0.2%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전년도만 해도 연·경의 커트라인이 수능 상위 0.6%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연·경은 이른바 폭발이 난 것이다.

같은 해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언·홍·영)와 자유전공(자·전)은 각각 연세대식 점수 341점대 (상위 1%~1.1%)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었다. 언·홍·영과 자·전도 경영학과와 견줄만한 인기학과임에도 불구하고, 2011입시 커트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큰 격차가 생겼다. 언·홍·과 자·전이 이른바 핑크가 났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폭발' 이란 용어는 어떤 특정학과에 예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을 하거나 고득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실제커트라인이 예상커트라인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핑크' 는 예상보다 적은 학생들 혹은 예상보다 낮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실제 커트라인보다 예상커트라인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핑크' 와 '미달' 은 다르다. 가끔 '핑크' 와 '미달' 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데, '핑크' 는 예상 커트라인보다 낮게 형성 되는 것이고, '미달' 은 아예 정원보다 적은 학생들이 원서를 써서 정원 자체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른상이라면 '핑크' 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본점수가 되어야 합격을 하게 되고, '미달' 은 수능이 1점이더라도 합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 입시에선 '미달' 은 볼 수 없고 이른상으로만 존재한다.

위의 연세대학교 실제 입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학입시에서 폭발과 핑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 수능점수가 나온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 흔히 5교시 원서영역 이라고할 정도로, 원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수 년 동안 노력해서 받은 수능점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능점수가 낮아도 원서점수만 눈치껏 잘한다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지만, 현재의 입시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원서를 어디에 쓰느냐는 문제는 수능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위에서 예를 든 경우처럼 폭발이 날 학과만큼은 피해야하고 게다가 핑크가 날 학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자신의 수능점수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 5개년 입시결과를 보면 폭발과 핑크가 심심치 않게 보일뿐더러 폭발과 핑크가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정시모집비중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모집인원이 줄다보니 수험생들이 특정학과에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지원을 해버려도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조금만 덜 지원하면 경쟁률이 급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세대의 경우 몇 년 전부터 학과별 모집을 하면서 학부모집을 할 때 보다 모집정원이 굉장히 작아져서 '폭발' 과 '핑크' 라는 변수는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폭발' 과 '핑크' 는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 입시생들은 '폭발' 과 '핑크' 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회에서는 '폭발' 과 '핑크' 의 상관관계와 실제 사례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허와 실을 밝힌다. (제1회)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 외 잠재력을 묻는 전형이 아니다"

먼저 이 글을 읽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상위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주로 본 칼럼을 쓰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제의 개념

학생 개개인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능력이 서로 달라
교과 성적과 수학능력시험이라는 동일한 잣대로는 다양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에 학생의 특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생겨난 제도가 입학사정관제이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이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자료, 자기소개서, 인터뷰(면접),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대학의 각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말부터 맞는 지 입학사정관 전형의 유래부터 보고 판단하자.

입학사정관제의 유래

입학사정관 전형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해계모니가 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미국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민(移民)족들의 역사이다.
초기 이민족인 앵글로색슨족은 기독교의 가치와 앵글로색슨을 중심으로한
서유럽의 백인 혈통을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양성하며 사회의 주류인 엘리트층으로 키워갔다.
그리하여 1890년대에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엔 보스턴 상류층 74%와 뉴욕 상류층 65%를 차지하였으며,
참고로 1900년부터 2008년까지 108년 기간 중에서 47년간은 세계 대학 졸업생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다.

1900년 초 까지 미국의 입시도 다른 대학들처럼 학업능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았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와 이 원칙이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 역시 미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이민' 에서 비롯되었다.
학업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자
후발 이민주자이지만 교육열이 높았던 유대인들의 합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의 주류인 기독교이면서 백인인 상류층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으로 여겨졌다.
이에 학업능력으로만 학생을 뽑을 경우 대학은 신입생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의 다수 입학에서 경험한 대학 운영진들은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던 미국의 입학시험에 대대적인 손질을 하여
1920년 이후 성격, 지도력, 집안 환경 등 성적 외 예도
학생의 잠재력과 리더십을 본다는 명분하에 탄생하게 된 제도가 '입학사정관전형' 인 것이다.
유대인 학생들은 성적은 우수하나 그들이 생각하는 비교과 영역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엘리트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라는 말은 실제로 당시의 미국 상류층들이
유대인이 그들과 같은 집단에 소속되는 것 에 대한 거부감을 포장하여 표현한 것 뿐이며

실제로는 막대한 기부금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문들의 자녀를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한 것이었다.

결국 입학사정관 제도의 초기 모습은 미국의 주요대학이 원치 않는 학생을 선별하는 장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은 시기별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학생들을 선발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신입생 선발 주안점

1900년 - 학업능력중심

1920년 -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민을 제한하려는 강력한 움직임 속에서

강인한, 성격, 건전한 신체, 적절한 사회배경을 의미하는 '전인적 남성' 을 원함

1950년 - 냉전과 스푸트니크2 의해 촉발된 '재능상실'에 관한 우려로,

SAT 우수생인 동시에 한 두가지 특별활동이 뛰어난 지원자

1960년-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 바람으로 인종차별과 여성 배제가 완화됨

1970년- 학업능력과 함께 동문자녀, 방과 후 활동, 체육특기 중심

물론 1960년대 인권운동과 계속되는 이민 자녀들의 성장 및 그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입학이 좀 더 개방화되고 체계화 되었으나 이들 대학의 학생 선발의 목적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요약하면 미국 상위대에서는 3가지 종류의 학생을 원한다.

첫째, 출세한 동문자녀를 통해 전통적 엘리트층을 증진하고

둘째, 신흥 집단의 유능한 구성원을 포함시키며,

셋째,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외된 계층자녀를 포함시킨다는 것이 선발의 기본 틀이다.

여기서 보드시피 미국 상위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은

현재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류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이 크다.

그들은 학생의 성적은 중요하나,

성적만 좋은 학생은 학교에 재정이거나, 현실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성적 외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이다.

결론은 미국 상위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일반 학생의 잠재력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본래 취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이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자료, 자기소개서, 인터뷰(면접),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대학의 각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게 하지 말고

적어도 상위대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싶은 유형의 학생을 성적 뿐 만 아니라 집안 환경을 보고 학교 발전과 사회 체제의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성에 여전히 논란이 있는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하여

감자기 2년 만에 대폭 확대한 우리나라 상위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실체는 어떨까?

수학공부의 조그만 진실

RAMSEY

수학공부방과 학습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다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두종류의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강사의 "교과서가 최고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내용 그리고 "교과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강사의 상업적 전략이다" 라는 내용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수학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고등학생이 읽기에 어울리는 정의, 증명, 정리 등이 있지만 예제와 연습문제와 함께 단순한 나열로만 구성되어있을 뿐 '길'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저 의견만 내놓고 역시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출판된 수능을 위한 수학교재를 살펴보면 모두 교과서의 구성과 확연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있다면 문제들의 성향, 수, 간략해진 요약정리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재는 이런상황이고 이 교재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길'은 이렇습니다. 우선 수학공부를 하며 제가 간 '길'의 일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1 다음내용을 읽었다.
공통수학(7차예선 수학10) 도형의 방정식 중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는 '한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 2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
뭐? 원이 저런 것이라고? 그냥 동그라미 라고하면 충분해, 뭐하러 저렇게 어려운 말을 썼지?
- 3 서점에서 교양서적을 찾아읽어 다음을 알아내었다.
수학의 정의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과 거리가 먼 형태를 띄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순환논법을 막기 위해 일부러 짜맞추어낸 것이다, (교육의목적? 수학교육에 대한글"- 화이트헤드 저)
- 4 3번의 내용 발전시켜 이해한 것
그래? 수학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추론하는 도중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거구나. 내 마음대로 원을 정의해버릴면 원을 동그라미라고 정의하고 동그라미를 원으로 정의하는 순환논법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거야. (*지극히 단순한 예임) 그래선 안되겠지, 그러면 다른 정의들도 마찬가지로겠군.
- 5 1번에서 4번까지를 토대로 생각을 정리한 것
정의는 수학이 추론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야, 따라서 정의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기전에 사람머릿속엔 이미 그 정의가 나타내는 개념이 들어있었다는거지, 그것은 직관 과 충분히 관련이 있어, 그래 그럼 원에 대한 내 느낌은 틀린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는 원의 정의를 남득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한다,
"원의 정의에서 원의 방정식을 이끌어낼수 있어 그걸 아는게 더 중요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건 원의 정의가 왜 직관과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다,
원의 정의 자체에서 뭔가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 상위권 학생들은 원의 정의와 방정식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원의 방정식이 중요하다는건 부인할수없다,
다만,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반드시 원의 정의에만 있어야한다는건나?
이건 좀 아닌것같다,
난 내가 남득이 갈때까지 의심한다,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을까?

데카르트는 좌표평면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좌표평면에 도형을 옮겼을때 대수적인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수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나의 방정식은 하나의 도형을 상징한다,
대수적인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기하학에 대해 더 많은것을 알아낼 수 있다,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건 그들에게 가치있는 일이었다,
계속적인 노력끝에 원을 이루는 점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현재와같은 방정식의 모습을 이루게 된것이다,

자 다시 살펴보자,
원의 정의에서 방정식이 나온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의 정의가 만들어진과정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과정은 둘다 모두 원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원들이 가진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인과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은 것일 뿐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할것은 원의 정의와 방정식과의 관계가 아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으로 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그 아이디어에 의해 직선, 타원, 그밖의 도형들을 우리가 어떤방식으로 다룰수있게되었는지
그 효과에 주목해야한다,
(수학에 관심이 있다면 알겠지만, 데카르트의 발상은 수학사에 엄청난 혁명이었다)

내가 스스로의 질문에 답한 과정을 보면
점수와 별로 상관없어보인다, 물론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것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나는 벌써 '길'을 말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위에서 생각한 과정을 다른 눈으로 살펴보자,

나는 어떻게 의심을 하게 되었나?
원의 정의가 남득이 가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되어야하는지 의심이 생겼다,

즉, 보통사람이 남득하기에 느낌이 딱 오지않는 온갖 것들에 태클을 걸었다!
그것을 질문으로 바꾸어 계속 답을 찾아가자,
그것은 교과서에도 문제집에도 문제집뒤에 해설집에도 나오지 않는다, 스스로 만드는것이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위해 나는 수학관련 교양서적을 이용했다,
(책이름들을 쓰면 왠지 광고가 될거같아서 일단 안쓰겠습니다.)
단, 시시콜콜한 생활속에 담겨진 수학적원리에대한 책따위는 펼쳐보지도 않았다,

다음에 문제풀이에 나의 '길'을 적용해보았다,

$1/(x^2+4)$ 를 적분하는 문제...

푸는 방법이 뭘까? 내가 고교수학공부하면서 가장 짜증났던 순간이
이 문제 풀이방법을 보았을 때다, 알겠지만 삼각치환을 써야한다,

난 이 전히 개인성없어보이는 문제풀이를 계속 의심하여 많은 것을 얻어냈다.

자, 문제부터 보자,
여기서 어떻게 삼각함수를 떠올릴수 있을까?
이 문제를 최초로 풀었던 수학자는 삼각함수를 떠올려서 풀었을까?
내가 조사한 바로는 '아니다',
그 과정을 말하려면 대학교 1학년과정이 약간필요하다,
물론 필요없는 방법도 있긴한데 여기에 수학기호를 멋지게 쓰는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생각,
어차피 중요한건 따로있다, 각자 알아보는것도 재밌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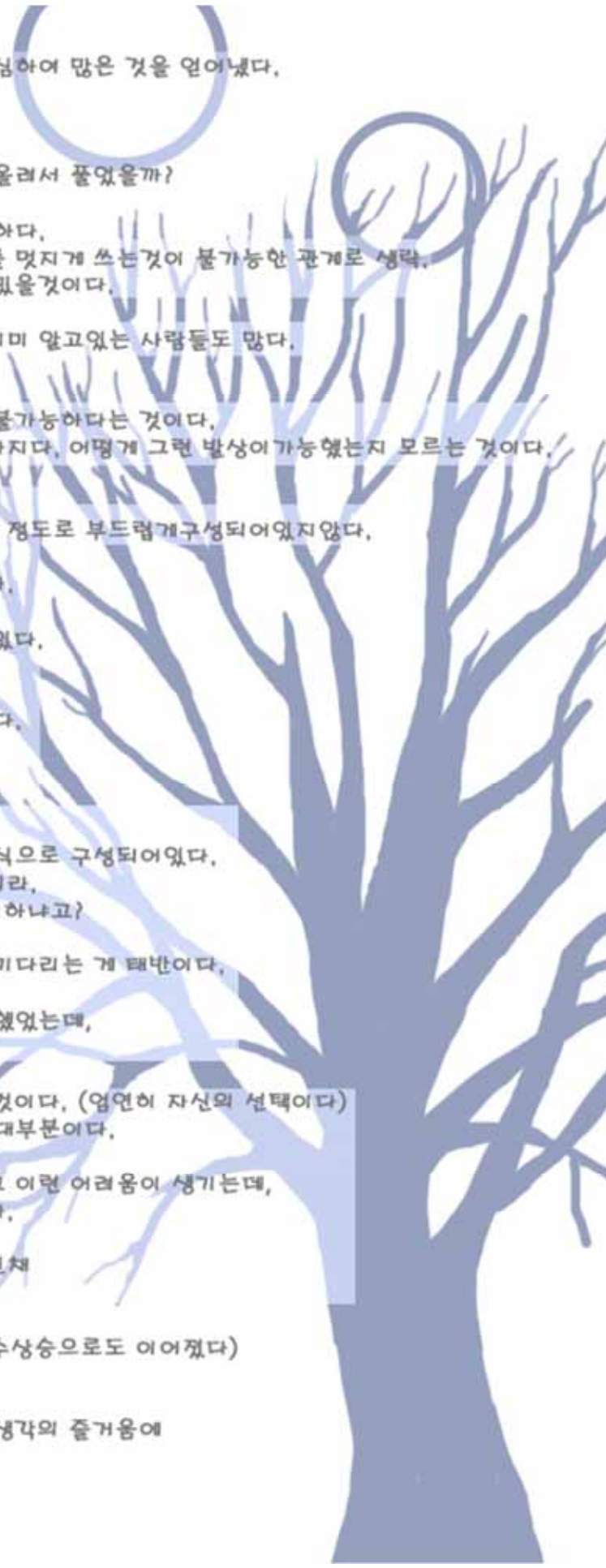
자 여기서 알아낼수있는 중요한 사실, 근데 이걸 이미 알고있는 사람들도 많다,
핵심은 '교재구성이 잘못되었다' 는 점이다,
어떻게 잘못되었나?
어러분은 이미 알고있다, 삼각치환을 생각해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리 삼각치환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가능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조금 더 발전시켜볼까?
수학교재들은 우리가 차례차례 남득해나갈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구성되어있지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
남득할 수없는 부분은 부정하고 스스로 만들면된다,
어려울것같다고? 전혀
당신이 남득못하겠다고 느끼는순간별써 만들어져있다,
어떻게 아나고?
남득못한것은 곧바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하라고 별써 지시하고있다,
인간정신의 능력을 믿어라,
당신은 만물의 영장이다.

수학책을 너무 믿지 말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의심이 가서 남득못하는 부분은 남득할수있게 바꿔라,
어려워서 못푸는 문제가 있다고? 그건 어떻게 처리하냐고?
상위권 학생이 어려워서 못푸는 경우는
대부분 뭔가 섬광같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길 기다리는 게 태반이다,
사과가 떨어지길 바라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풀이가 생각나지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의심했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자.

만약 끝까지 생각해서 못풀었다면, 풀이를 봐야할것이다, (엄연히 자신의 선택이다)
풀이 역시 남득안가는 구성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틀린 건 아니지만 부드럽진 않다,
보통 풀이를 짚고 간결하게 필요한것만 써넣으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따라서 풀이과정구성에 태클을 걸어 의심해야 한다,
자 책에 나온 규칙들, 선생님의 규칙들,
최상위권 학생들의 조언들의 권위는 잠깐 잊어버린채
남득이 안갈 땐 끝까지 의심하여 바꿔버리라,

그것은 학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난 그것이 점수상승으로도 이어졌다)
점수상승?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이지만,
자 그만하고 마치자,
해보라, 점수상승보다 의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각의 즐거움에
공부가 짜릿해진다!



문과에서 이과로의 반수

by 아름다운 날

안녕하세요

작년 문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서울의 한 대학교를 다니다가 반수하여 올해 수시로 인제대 의대입시에 성공한 21살 새내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있는 이유는, 제가 반수를 하면서 느낀..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고 살기위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잘 풀어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2월. 문과생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문과와 이과를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가지 일들이 잇었습니다. 당연히 이과로의 진학을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 많은 일들이 겹치는 바람에 문과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이걸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때 이과로 다시 전과를 해야 하는건데 어리석게도 전, 계속 의대를 꿈꾸면서 교차지원을 할 생각으로 문과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입시에서 교차지원의 벽이 높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시에서 작년 서울교대와 고려대학교를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전 이미 다시한번 수능을 볼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서울교대에 입학했지만 교사는 아무래도 제 적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재수를 하자니 두려웠습니다, 사실. 의대를 가겠다고 사수, 오수 하는 사람도 많은 판인데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해서 재수해서 수학과 과학을 한다는게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전 내신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좋지않은 편이었거든요.. 의사가 되고싶었지만, 현실에서 저는 다른 재수생들에게 달리고 밀리는 반수생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수능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입시방향을 알고 또 제가 할 수 있는것을 찾아서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대 홈페이지는 세 네번씩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맞는 전형을 찾았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온다고 하늘도 제편이셨는지 올해는 과탐도 두 과목으로 즐었고 게다가 입학사정관제로 많은 대학이 전환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인강을 들으며 수리 공부를 하는 동시에 흔히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쌓기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수학교공부를 하다보면 새벽 3시 4시에 잠들기 일쑤였지만 아침엔 6시에 일어나서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텡스와 토익 점수를 따기 위함이었죠 .



그리고 인터넷을 살살히 뒤져 제가 할 수 있는 의료 봉사활동을 찾았습니다.
매마침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떤 단체를 소개시켜주셨고,
저는 그 단v체에 소속되어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의 노인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7월.

반수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첫 메가스터디 모의고사에서

언어 2, 수리 가 2, 외국어 1, 과탐은 모두 6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 8월부터 과탐을 시작했거든요.

3월부터 시작한 수리가형이 2등급 나왔다는 것에 한편으론 흐뭇했지만

언어도 2등급이었고, 더군다나 과학은모두 6등급이었습니다.

과탐, 이걸 언제다할지 너무 멀게만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7월 한달동안은 재수학원에 다녔고,

학원을 다니다보니, 그래도 공부를 좀 했던 수학은 학원수업을 따라갈수있겠는데

공통과학이 전부인 제게 과학수업은 외계어같아서

8월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8월 한달간 저 혼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강을 들으며 하나도 몰랐던 과탐을 시작했고

수학공부도 게을리할수없었기에 벡터와 공간도형에 매달리며

혼자살았던 고시원과 독서실을 왔다갔다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수있지만

그땐 참 쉽지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리고 과탐이고 만만한게업어서

과탐을 포기할까 수리를 포기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했습니다.

몇개 학교는 수리가에 사탐 혹은 수리 나에 과탐을 허용하고있었기에

그런걸 생각하며 기형적으로 수리가에 사탐, 수리나에 과탐을 할까

수도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었던,

제겐 스승같고 또 오빠같고 친구같은 저에게 너무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 꼭 수리가를 해서

너와의 싸움에서 성공하라고.저에게 힘을주었습니다.

그사람의 설득에 저는 수리와 과탐을 차마 포기할 수가없었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그 사람, 또 부모님, 무엇보다 제 오랜꿈을 위해서

저는 꼭 이번 입시에서 당당하게 이과생으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위해선

포기하는 길이 아닌 더 열심히 공부하는 쪽을 택할 수 밖에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몸도 마음도 지치기쉬웠고

혼자공부를하면서 나태해지려 할 때도 많았지만

얼마남지 않은 9월 평가원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8월 한달, 제가 혼자 공부한 결과를 보여주는 시험이었기에

너무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여전히 언어가 잡히지 않아서 2등급이었지만

수리 가형과 외국어 1등급.

그리고 생물은 2등급,

천문단원을 보지못했던 지구과학은 3등급이 나왔습니다.

전 이렇게 인수외에 과탐 딱 2과목의 시험을 쳤습니다.

수리가형일등급은 사실,찍은 문제를 잘맞아서

이런 결과를 얻을수 있었던면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그후로 자신감을 얻었고,



9월 수능접수를 하고, 학원에 들어가서는
정말 좋은 선생님과 인생선배이자 수학선생님이었던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제가 특히 약했던 공간도형이나 미적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가원이후론 수시원서를 쓰기시작했는데,
전 어떤 의대든 의대이기만 하다면
그저 감사했기에 제가 쓸 수있는 의대엔 모두 원서를 썼습니다.
내신전형도있었고, 입학사정관 전형도있었습니다.
내신 전형은 제 내신이 좋은 편이 아니라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잡는 심정으로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저를 잘 어필해야했기에
며칠밤을 새며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루는 밤을새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다음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3등급이 나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결과를, 인정하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지만,
그 성적표를 받고 마음아파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대에 가겠다고 혼자 고시원에서 살면서 고생을하고있는데,
나온 결과가 한번도 받아본적이없었던 3등급이라니...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아팠습니다.
하지만 좌절할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다시 책을 볼 수밖에 없었고, 수업을 들을수밖에없었습니다.
이무렵 수시결과도 나오기시작했는데,
주로 입학사정관제 결과는 늦게 나오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일차선발을 하는 학교들의 수시발표가 먼저 나와
내신에 자신이없었던 저는
몇번의 일차 불합격통지와
당연히 가능성이없어보이는 대기번호를 받았고,
정말 많이 좌절했고 걱정했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10월 29일 . 입학 사정관제로 전환한 인제대 의예과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날,
저는 처음으로 일차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1시 30분쯤 몰래 강의실을 빠져나와 컴퓨터 앞에 앉았고
"결과확인" 버튼을 누르면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두근두근...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땐, "1차합격"이라는 말이 가장크게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펴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아빠께도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도 같이우셨습니다. 일차합격을 한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며 .
아직도 그 날은 정말 제게 잊지 못할 짜릿한 날입니다.

네. 그리고 11월 18일 대망의 수능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모두 어려워서
수능이 끝나고 교실을 빠져나오면서 정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데릴러오시겠다던 아빠마저 늦어지시는 바람에
전 아빠를 기다리면서 무거운 짐을들고 한 시간 넘게 걸었습니다.작잡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수능 언어와 수리 쉬울 것이라고 했는데
수리때문에 언어와 외국어에 많은 신경을 쓰지못해서
언어와 외국어가 나에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것일까 싶고,
수리도 많이한다고했는데 아직도 부족한가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했습니다.
채점을 하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모두 작년에 비해 떨어진 점수에
전..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메가스터디의 가채점결과를 확인한 결과,
언어 1등급 컷 90, 수리가 80 외국어 90.
그리고 메스킴은 이번수능이 어려워 커트라인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보도를 하고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은 내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온다는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어려운게 아니었구나, 다들 어려웠구나 .
내공부가 많이부족했던게 아니었구나. 안도감과 함께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림대 1차에서도 합격 통지를 받았고
인제대 면접도 꾸준히 했던, 또 배운게 많았던 봉사활동과
열심히 읽었던 의대, 의사, 의료와 관련된 서적때문에 무사히 넘졌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저는 언어 1 수리가 1 외국어 1 생물 1 지학 2 등급이라는 황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핸드폰을 열었을 때,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힌 인제대로 부터 온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 때 전 서울에 놀러갔다가 지하철 3호선에 타고있었는데,
지하철안에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나도록, 힘들고 슬펐던 저의 약 5개월들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모든 것 하나하나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서울교대 자퇴를 완료하고
인제대 의예과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인제대가 가장 좋았고,
인제대의 일차 합격통지는 제게 용기와 또 기쁨을 주었기에
그 감사함에 저는 인제대로의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참 긴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이렇게글을 쓰면 어찌면, 이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채 일년도 수리 가형 공부를 안했지만,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머리가 나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 머리는 절대-다른의대생들만큼 좋은 머리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는 제 성공의 원동력을 제 머리가 아니라,
제 뛰는 가슴과 그리고 제 꿈을 이룰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길을 찾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가슴뛰는 일을 위해 가슴뛰는 노력을 하라고, 진심이 담긴 노력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늘도 분명히 자신의 편이 되고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은 제가 의대에 입학한 게 꿈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얼떨떨하고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의대에 입학한 것으로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의대 입학에 성공했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 가정형편이기에
당연히 학비를걱정해야하고, 방학을 너무나도 부족한 과학공부와
그리고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학생들 과외를 하느라
매일매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예비 의대생일뿐입니다.
이제 의대라는 문에 한 발 다가섰을 뿐이고,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것이고,
슬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의 삶에서 이런 저의 열정과 꿈이있다면
앞으로 제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 그 고통 역시 지나고나면 좋은 추억이, 저를 키울 양분이 될 것을 믿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until과 by의 미묘한 뉘앙스를 느껴보자!

영어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until의 의미를 '-까지'라고 외웁니다. 그리고 by도 마찬가지로 '-까지'라고 외우고요. 그러다 보니 until과 by 중에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 밖에 없고, 말하거나 영작을 할 때에도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해서 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독해할 때에도 until이 나오면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가령 어떤 상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앞에 "Closed until Sunday" 라는 팻말이 걸려 있다면 언제 문을 연다는 소리일까요?

until을 '-까지'라고 외우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요일 까지 닫는다(=일요일에 연다)'라고 해석하여 월요일에 다시 상점을 방문합니다.

그러다보니 외국 유학생 가운데 "Schools Closed Until Next Monday"라는 말을 보고 화요일에 학교에 갔는데 어제 왜 결석했냐고 질문을 받는 해프닝도 심심찮게 생깁니다.

이렇게 until을 '까지'라고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면

until의 미묘한 뉘앙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도 직독직해하지 못하고 until부분부터 거꾸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령 A until B라고 나오면 'B까지 A하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습관은 독해에는 그럭저럭 먹힐지 모르나 리스닝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until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until은 기본적으로 '반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전(反戰, antiwar)이 아니라 반전(反轉, twist)말이지요.

즉 A until B 라고 되어 있을 경우 B에는 A와는 다른, 다소 놀랍거나 의외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until입니다.

아래는 최근에 영국에서 절찬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Skins에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until의 느낌을 전달하기에 매우 좋은 예인 것 같아 발췌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대사가 나오는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는줄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가 딸에게 진심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때 어머니의 대사입니다.

And, you know, your dad turned out to be a shitty little prick, and it was all a little bit rubbish.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는 알고보니 완전히 나쁜놈이었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엉망이었지.

Until you made my life complete.

그러나 네가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어. (=너를 날고 나서 내 삶이 완전해졌단다)



위와 같은 문장에서 until부분을 먼저 해석하여 "네가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들기 까지 모든 것은 엉망이 었단다."라고 하면 해석도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야 하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뀌어 버립니다.

앞서 "A until B"에서 B부분은 반전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사람은 "A"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B"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위 대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머니가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it was all a little bit rubbish"일까요?

물론 아니지요.

모든 것이 엉망이었지만 너를 낳고 난 이후에 상황이 반전되어 "you made my life complete"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until의 쓰임새입니다.

즉 until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면 됩니다.

A until B : A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B했다.

● *You' ll just have to wait until they call your name.*

내가 여기서 기다리다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거야.

● *Baker is expected to be here until the end of the week.*

Baker는 계속 여기 있을거야. 그러다가 이번 주말이 온 거야. (이번 주말이 오면 떠날 거야)

● *Schools Closed Until Next Monday.*

학교는 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다음 월요일이 된다. (월요일이 되면 연다)

세 번째 문장 같은 것을

'다음 월요일까지 닫는다(=화요일에 연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closed하고 있다가 Next Monday가 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나 open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월요일부터 연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정어 not이 들어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not A until B'의 경우 'B하고 나서야 A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뉘앙스는 비슷하게 전달하지만 해석을 거꾸로 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요. 하지만 until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나면 해석도 쉽습니다.

until의 뒷부분인 B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B 부분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즉 'not A until B'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세요.

not A until B : A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B가 되었다. (그제서야 A하게 되었다.)

괄호 부분은 문장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문장에 드러난 상황에 대한 반전의 의미가 문장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She went to Felix's flat at midday and did not come out until late in the evening.*

그녀는 한낮에 Felix의 아파트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밤 늦게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 *They didn't see each other again until the autumn.*

그들은 다시 서로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을이 되어 (다시 만났다)

- *I cannot comment further until I have got all the information.*

더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연계가 모든 정보를 얻게 되면 (그때 다시 말해주도록 하지요)

'It was not until A that B' 형태의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구문 자체가 하나의 반전입니다.

즉, "C. It was not until A that B." 라고 하면

C문장에 대한 반전으로써 A시점에 B라는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It was not until A that B. :

A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앞 상황에 대한 반전으로써) B하게 되었다.

It was not until six o'clock that we got the first reports of trouble.

(계속 보고서를 받지 못하다가) 6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다.

이러한 until의 의미를 앞으로의 영어공부에 적용해보세요.

until이 전달하는 이러한 미묘한 뉘앙스를 익히고 나면,

영어를 듣거나 읽으며 '아!'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고 3의 다섯가지 철칙

갈락근의 함

1. 컴퓨터를 멀리하라.

평소에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블로그를 탐독하는가?
그렇다면 과감히 인강을 포기하라.
유명 온라인 강의의 듣지 않고도 높은 수능점수를 받은 사례가 A4용지로 최소 5000장이다.

고3 생활 힘들다.
힘들고 지루하다.

이것도 상대성법칙이라면 법칙인가?
힘드니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다크멘타리가 삼순이만큼 재미있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도 케로로만큼 웃기다.
하물며 평소에도 재미있어하는 니니지, 가스라이더, 벨크래프트는 오죽하겠는가?
세이월드도 방명록 열기가 마치 풋풋한 여중생한테 받은 러브레터 열기만큼이나 두근거리게 되는 고3이다.

이런 자들의 증상은
네이버뉴스만 읽고 인강 봐야지, 레벨/만 올리고 인강 봐야지, 방명록 리본만 달고 인강 봐야지 하는 말을 간헐적으로 내뿜는다.
그러고는 딱 5시간에 인강 1시간 대충 듣고 후회하면서
또 이전 행동을 되풀이한다.

평소에 의지력 약하고 컴퓨터 좋아하는 놀이라면 인강 포기하고
주말엔 경계가 삼엄한 독서실을 나가거나 안오면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학원이라도 나가라.
컴퓨터는 곧 재수라 생각하고 아예 근처에도 접근하지 마라.
게임 아이디를 지우거나 블로그를 해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컴퓨터는
수능 끝나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큼 많이 할 수 있다.

2. 친구를 멀리하라

같이 죽기는 쉬워도 같이 살기는 어렵다.
적어도 입시에서는

한놈이 지겨우면 짝짓을 하게된다.
당연히 다른 놈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한놈이 더 지겹게되면 다른 놈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놀이는 결국 스타 한판만하고
정신차리고 공부하자 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고

수능 칠때쯤엔 스타실력이 부쩍 늘어있는 그들을 발견할 수 있다.

수능시험은 친구와 협동하여 푸는 시험이 아니다.
결국 시험은 혼자서 치는 것이고 공부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멀리하고 휴대폰도 없애라. 문자오고 그러면 공부안한다.
그리고 고3때는 모바일게임도 폭스2만큼 재미있어지는 시기다.

3. 스트레스는 책으로 푼다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가끔은 쉬어야 한다.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고/2때처럼 싸움놀이를 한다던가
프리미어거처럼 4시간씩 축구를 했다간
내년에 재수학원 전단지쯤 뒤지게 될 것이다.

일 때 책을 읽자

유명문학서적이거나 수학, 과학잡지같은
수능에 연관된 내용을 담은 책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정 싫다면
고승덕이나 장승수의 합격수기라도 사서 읽으면 많은 힘이 된다.

그리고 여차라리 언어영역은 시간싸움이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놈들이 빨리 풀게 되어있다.

나는 쉬는 시간에 책을 읽으면
발전, 구토, 설사가 일어나는 체질이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잠은 자라. 머리라도 맑아지게.

게임방에서 한시간만 기분전환 했다가
한시간이 두시간되고 결국 게임방알바와
안부름 나누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고 3의 다섯가지 철칙

글: 악근의힘

4. 감각적으로 공부하자

옛날에 곰이라고 불리우는 놈이 있었다.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종이가 시꺼멀게 되도록 써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여
마침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여러가지 감각을 이용하면
뇌가 그만큼 활성화 된다고 한다.

머리도 좋지 않은 주제에
눈으로만 공부하려고 하지마라
시꺼멀게 쓴 걸 다시보라는 건 아니다.
자습시간에 중얼거리 남들 방해주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모든 감각을 활용할 여건이 마련된다면
활용하란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에만 집중시켜라.
간혹 한 손으로 수학 풀고 귀로는 별밤듣고 다리는 달달 떨면서
자신들은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별종들이 있는데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운영체제도
최소한의 사양이 되어 깔린다.
머리는 640KB XT면서
많은 걸 바라지 마라.

5. 수리가형에 집착마라

수리가형 많이 어렵더라.
옛날 6차때보다도 훨씬.

일단 범위부터 나형보다 3배나 많다.

나형이 학륵이 많이 나오네 어쩌내 하는 놈은 많아도
가형보다 어렵다고 아무도 말 못한다.

수리가형 안되는 사람들
끝까지 안된다.

선생님 나에겐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지만 끝까지 안되더라.
문제는 해마다 장의적으로 변해가고 가형 응시자는 해마다 준다.
당연히 표준점수 잘 받기도 그만큼 어렵고
백분위 잘 받기도 어렵고 등급 잘 받기도 어렵다.

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놀이 수준만 하지만

그 엄청난 노력끝에도
결국엔 좌절하는 걸 보고있노라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다.

수리 가형은 열심히 봤는데도
50점을 못넘는 학생이라면
인문계로의 전향을 심각히 고려해보기 바란다.

어떤 형은 수리 20점이었는데 수능때 95점 나왔는데요?
그형은 그형이고 너는 너다.

그형은 무수한 태배자들의 시체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장미꽃이다.
그형은 로또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다.
그형은 엄마친구아들이다.

전쟁에서
전술만큼 중요한 것이 전략이다.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최악의 전략이다.
최고의 전술도 최악의 전략 바탕에선
결코 빛을 낼 수 없다.

아랍어 SKY준비생에게 아직도 블루오션이며 필수과목이다.

각습동 So83번 NewID

아랍어라..

'아랍어 블루오션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 제가 고1때부터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10학번으로 대학에 가는 나이가 되었지요.

저도 '내신에서해냈기때문에+레드오션될까걱정'으로 일본어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수능 끝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정말 엄청나게 후회했었습니다. (만약 떨어졌다면 더욱 후회했겠지요.)

먼저 밑에 글쓰신 분께선 아랍어가 백분위 100%가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SKY지망생에게 이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줄이자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마음 같아선 더 심한말도 적고 싶지만, 참도록 하고 이유부터 말씀드리지요.

1. 백분위 100% 한 번 안 나왔다고 영원히 백분위 100% 안 나오는가?

올해 아랍어 백분위가 최고 99%였습니다.

근데 말이지요, 백분위 100% 한 번 만나왔다고 다음도 계속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한국지리 예전에 수능에서 한 번 엄청 쉽게 나온적 있지요?

그 때 아마 50 아니면 일등급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말이지요, 올해도 한국지리 50점 안 맞으면 1등급 아니었습니까?

다 맞았는데 99%입니까? 96%입니까?

더 가깝고 현실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본어'

3년전만해도 쉬운 제2외국어의 표준이었었습니다.

이 과목이야 말로 하나 틀리면 2등급 뜨는, 흔히 '오덕들의 영역' 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과목이었지요.

(지금도 그렇게 여겨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올해 일본어 100% 없었습니까? 일본어 쉬웠습니까?

100%가 없어지는 건 정말 '그냥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등급 하나 자체가 블랭크될 수도 있는데,
퍼센테이지 1 정도 블랭크 되었다고 내년부터 그게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게 정말 말이 됩니까?

매년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매년 학생들의 실력은 바뀝니다.

또한 매년 치뤄지는 모의고사나 평가원에 따라서 학생들의 공부량도 달라지지요.

특히 작년에 어떤 과목이 쉬웠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 다음해에도 그 과목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죠.

물론 아랍어는 과목의 특성상 어렵게 못 낸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평가원 교수님들께서 바보가 아닌 이상 100% 만들어내기 위한 킬러문제 하나 안 내실까요??

(근데 아마 그 킬러문제들은 이미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다른 제2외국어 킬러문제보단 10배 쉬울겁니다.)

정리하면, 내년에 아랍어가 100% 짜리가 없어질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외로 밑에 글쓰신 분이 추천하신 일본어나 중국어등의 과목이 2010학년도엔 너무 어려워서

2011학년도 것은 난이도 내렸다가, 어려운 문제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해당 과목 유저들에게 있는 대로 난도질 당하고 원점수 50점이 98%이하로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단순히 한해 100% 없어졌다고 다음해도 100%는 없을 것이다?

..... 이걸 도대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2. 백분위 100% 아니면 서울대 지명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

백분위 100% 아닌게 서울대에 치명적이면 서울대는 원점수 495점 이상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대는 입학생 20명 정도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백분위 100% 안 맞아도 충분히 서울대 갑니다!

특히 그게 사탐이나 제2외국어면 백분위 100% 아니어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올해 왜 서울대포탈에서 아랍어 부러워하는 타 제2외국어 분들이 넘쳐났습니까?

심지어 그 것 때문에 순간 분위기 안 좋아진 적 까지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쓰셨습니까?

아무리 올해처럼 몰수능이었어도 백분위가 99면 충분히 상위점수입니다.

그리고, 백분위 100점 맞는게 다른 제2외국어는 쉬운 줄 아십니까?

마치 아랍어 안하면

다른 제2외국어 만점은 열심히 하면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쓰셨는데요.

일본어나, 중국어, 한문등은 조금만 쉬워지면 금방 백분위 100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건 학생들 실력이 매우 높기 때문이지요.

지금 그 과목들에서 이렇게 백분위 100%가 존재하는 건 그 만큼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글쓰신 분은 그 제2외국어 시험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기본 동사나 명사, 문법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 잘보려면 짜잘한 내용까지, 꼭 외워야되며

심지어 외워야될 조사가 20개쯤 있으면

그 조사 하나당 많으면 10개 정도의 의미나 쓰임을 외워야 하는게 레드오션 제2외국어입니다.

(실제로 일본어는 3년전부터 계속 그렇지요.)

반면에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백분위가 98%이하로 내려갑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역대 최강으로 어려웠는데 2개 틀리면(46) 95%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아랍어 제외한

레드오션 제2외국어에서 백분위 100을 맞는다는 건 말 그대로 운이 좋거나,

그 해당 제2외국어를 진짜 미친듯이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레드오션 제2외국어를 푸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다 알고 푸셨습니까?

모르는 단어들도 나오고, 어느정도 시험 스킬이나 감까지 다 사용해서 푸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백분위 100 보장하고 가려면 정말 그 해당 제2외국어 엄청 잘해야합니다.

심지어 하나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을 그런 절대실력 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력 쌓으려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다른 공부 시간 날리는게 낫나요?

아니면 아랍어 바짝 공부해서 몇개씩 틀리면서도 99% 받는게 나을까요?

(물론 내년에도 100% 없을 확률은 20%이하지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 개념서 10번 넘게 보고 외우라고 준 단어도 10번씩 넘게 외우고

기출문제도 5개년 어치 3번씩 다 풀고 수능특강같은 ebs 교재까지 싹 다 풀고,

교과서와 심지어 수능 시험범위 넘어가는 일본어2까지 봤는데도 원점수 50 못 맞았는데요? 2개 틀렸어요.

이건 물론 제 실력이 미흡해서 였겠지만,

평가원이나 10월모의점수 보면 제가 50점 못 맞을 실력도 아닌었는데 말이지요. (50, 48, 50)

3. 반대로 아랍어의 이점은 끝이 없다.

아랍어의 이점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부량이 적다.

아랍어 공부량은 적기로 유명합니다.

일부 아랍어 선택자분들께선 '막상 50점 맞으려고 들면 할 내용이 그리 적지는 않다'고들 하십니다..

과연?

옆에서 친구들 아랍어 하는 거, 그리고 개네들 아랍어 잘 보는 것을 본 제 입장에서만 봐도

다른 제2외국어와 아랍어의 공부량은 비할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밑에 글쓰신 분도 자기는 금방 아랍어 했다고 하셨지요?
이 공부량은, 대부분 3학년때 제2외국어를 시작하는 현재의 풍토에서
타 제2외국어 선택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적 여유를 줄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노리는 분들은 국사까지 4과목 사람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간적 어드벤처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지요.

둘째, 성적이 잘 나온다.

아랍어 1등급 컷이 20점대 초반입니다.
근데 다른 제2외국어, 아니 모든 과목을 다 고려하더라도,
20점대는 무슨, 1개 틀려도 2등급인 과목이 천지로 깔렸습니다.
근데 1등급, 즉 96%가 20점대라니오!!!!??? 이걸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랍어가 신이 내린 과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혹시 밑에 글쓰신 분이 100%아니면 안될 것 처럼 말씀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절대하지마십시오.
96%면 괜찮게 받은 겁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올해 제가 수시로 S대 최고학부 중 한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이트온에서 채팅할 때 제2외국어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100% 받으신 선배님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2외국어는 4등급 맞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등급이면 훌륭한 겁니다.
근데 아랍어는 공부 좀만하면 무난히 99% 나오는 과목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근데 성적 잘나온다고 설마 밑에 글쓰신넘처럼 다들 잘 나올 거라곤 생각마세요.
어느정도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고, 아랍어가 한두개 틀려서 흑갈정도 되려면 아직 10년은 이릅니다.
당장 3년내에 그런 과목으로 변할 것이라는 도박을 집걸고 하려면 전 할 수 있습니다.
아랍어 선택자들 실력 올라간다는 말은 제가 1학년 때부터 나왔고 올해도 끊임없이 나왔는데,
결국 이게 뭐니까? 1등급이 20점대 아닙니까?
아랍어는 짝어서 잘 나올 것 기대하고 보는 사람이 70%고 (학교에서 주위만 봐도 이렇죠?)
나머지 20%는 고사장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호기심으로 고르는 문,이과생들입니다.
그리고 한 글자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10%도 안되는 상황이지요.
이런 과목이 레드오션이 될 수 있을까요? NEVER!!

셋째, 시험이 쉽다.

아랍어는 시험이 쉽습니다. 이에 관해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봤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야 아랍어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1등급을 맞았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랍어 다 짝었는데 1등급 맞은 사람이 있더라' 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랍어 역사 따질 것도 없이 올해만해도 그런 사람이 적어도 수십은 될 것입니다.
이런 아랍어 시험은 정말 타과목에 비해 큰 부담없이 볼 수 있고
위험부담도 적은 동시에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화가 나는 것은, 입시에 대해, 과목선택에 대해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글을 보고 움직였다가 낭패볼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학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에 더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결과는 좋았지만,
만약 제2외국어로 인해 발목을 잡혔다면 지금 더 심하게 글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실 때 한번 더 생각하고,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그 글의 파급력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제 말이 100% 옳다고 저도 말씀 못드립니다.
어쨌든 밑에 글쓰신분 말처럼 아랍어에서 100%가 오랫동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시는 항상 카오스이고, 장담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의견이 99.9%이상은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제발 아랍어 하세요. 제발

그냥 재수생 만화

by 나재수



두근 두근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

나는 !! 이제 재수생 이다!!!



명문 입시 학원

앗 여기가 말로만 들던
그 명문학원!!!!

아니 저 마크는.. 성적 0.1%를 인증해야 팔 수
있다는 예피!!!!



